

종합·해설

문-안, 단일화 착수 시기 신경전 팽팽

문 "이번주내 협상 테이블에 앉자" 안 "다음달 10일 이전엔 어렵겠다"

다. 문 후보 측은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가 인물연대였지만, 이번 단일화 과정은 가치연대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더뎠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안 후보 측은 문 후보 측의 시급한 협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002년의 경우 경선 방식만 합의하면 됐지만 이번에는 정치쇄신 방안에 대한 협의와 더불어 공약 전반에 대한 정책연합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경선 시 온전한 국민경선을 실시하는 못하더라도 여론조사만으로 승부를 짓는 것은 피해야 하고, 안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더라도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제할 것이어서 협상 협력이 될 것을 예고한다. 또 단일화 협상에 들어갔을 때 지

분나누기가 아닌 가치연합의 모습을 보이려면 정치쇄신, 정책, 단일화 방식 등 협상타임을 3개로 나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안 후보 측은 문 후보 측의 시급한 협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002년의 경우 경선 방식만 합의하면 됐지만 이번에는 정치쇄신 방안에 대한 협의와 더불어 공약 전반에 대한 정책연합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경선 시 온전한 국민경선을 실시하는 못하더라도 여론조사만으로 승부를 짓는 것은 피해야 하고, 안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더라도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제할 것이어서 협상 협력이 될 것을 예고한다. 또 단일화 협상에 들어갔을 때 지

'보수대연합' '야권단일화' 대선 세대결 '급물살'

박, 선진당·행복당 합당... '국민대통합' 승부 야권 재야원로 압박 속 '단일화 논의' 임박설

12월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야 정치권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연대와 단일화 시도 등으로 세대결을 본격화하면서 정국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국민대통합의 전 단계로 보수대연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야권은 재야 원로들이 야권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통합당 문제인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대선구도는 '보수대연합 대 야권단일화'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박 후보 측은 보수대연합을 기반으로 국민대통합을 이룸으로써 야권단일화 카드에 맞서겠다는 구상이다. 새누리당이 지난 25일 총선권기반의 선진통일당과 당 대 당 합당을 공식 선언한 것은 이 같은 구상의 첫 성과였다. 또 28일엔 국민

행복당 허경환 대표와 핵심 당원 56명이 박 후보 지지와 새누리당 입당을 선언, 힘을 보탤다. 허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관을 지냈으며 지난 4·11 총선에 앞서 국민행복당을 창당해 28명의 국회의원 후보를 냈지만 단 한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박 후보 측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한광욱 선대위 국민대통합부 수석부위원장을 내세워 민주당 내 비노(非盧·비노무현) 인사들을 추가로 영입해 국민대통합 드라이브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는 야권은 후보단일화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문제인 후보와 무소속 안 후보 측이 이날까지도 정치개혁안 등을 놓고 충돌하고 있고 단일화 논의 시나 방법 등을 놓고도 여전히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

지만 결국은 단일화에 합의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양 진영 모두 단일화 실패시 정권교체가 힘들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데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함세웅 신부 등 진보진영 재야 원로인사들의 단일화 압박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시기상 후보등록(11·25~26) 전일 가능성이 커 내달 초부터 양측간 물밑 접촉이 본격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후보단일화시 '박-문-안' 3자간의 팽팽한 구도가 일시에 깨지면서 야권 단일후보에 유리한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양 진영의 이 같은 움직임 속에 PK(부산·경남)와 충청지역의 표심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된다. 전통적으로 여당 텃밭인 부산의 경우 야권 지지율이 이미 40%를 넘는 상황에서 이 지역 출신인 '문-안' 두 후보가 단일화하면 시너지 효과로 인해 지지율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충청권은 선진당과 합당한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부인끼리 '단일화 논의?' 민주당 통합당 문제인 대선후보의 부인 김경숙(왼쪽)씨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위드메이비 유모차 걷기대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남뉴스

"故 김지태 재산헌납 강압 있었다"

부산고법 판결

고(故) 김지태씨의 재산헌납에 강압성이 있었는지 놓고 유족과 정수장학회,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고법이 최근 강압성을 인정한 판결을 해 주목된다. 김씨가 1958년 부일장학회를 설립하려고 사서 본인, 부산일보, 부일장학회 임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가 1962년 언론 3사 주식과 함께 국가에 헌납한 땅 1만5735㎡를 돌려달라며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다. 부산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에 있는 이 땅의 소유권은 1962년 7월 정수장학회(당시 5·16장학회)로 넘어갔다가 이듬해 7월 정부로 귀속돼

현재 대부분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부산고법 민사5부(윤인태 부장판사)는 김씨 유족이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혁명정부의 다소 역압적인 사회 분위기에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지 않으면 김씨나 가족 등의 신체와 재산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러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증여 의사표시는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연남뉴스

광주 은 이정희 대선 후보 "야권연대 논의 아직은 이르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는 지난 26일 광주 조선회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 "이번 대선에서의 야권연대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라며 "지금은 야권연대의 기초인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통합은 종북좌파라는 프레임으로 자신들에 불리한 이야기만 나오면 이용하고 있다"며 "욕을 먹으면서 야권연대를 주도했지만 이 건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야권 후보끼리 단일화하면 이긴다는 환기에 갇혀 있다"며 "이는 지난 총선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종형기자 glee@kwangju.co.kr

야권단일화 창구·중재 역할 누가 맡나

문, 이인영·김부경 vs 안, 박선숙·김성식

민주당 통합당 문제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협상 창구 및 중재역에 누가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각 후보의 마음을 제대로 읽을 수 있으면서 또 양측으로부터 모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사가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일단 문 후보 측의 경우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이 거론된다. 그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과의 단일화 협상에서 민주당 측 협상 대표를 맡았다. 김부경 공동선대위원장은 안 후보는 물론 김성식 공동본부장과도 가까운 사이다. 박선숙 본부장도 친분이 두터운 박영선 공동선대본부장의 이름도 나온다. 안 후보 측에서는 박선숙·김성·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이 우선 거론된다. 박 본부장은 원래 민주당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던 인사였던 만큼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송 본부장은 안 후보와 각별한 사이로 민주당 출신이기도 하다. 양측간 협상이 시작되도록 다리를 놓기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중재할 수 있는 인사들도 다각도로 거론된다. 일단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등 재야 원로인사들이 이뤄진 '희망 2013' 시리즈 2012 원탁회의'가 중재자를 자임한 상황이다. 원탁회의 인사들은 두 후보 진영과 관계도 끈끈하다. 백교수는 안 후보가 출마하기 전 만나 조언을 건넸고, 최영도 변호사는 문 후보 측 '새로운 정치위원회'의 반부패특위 고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3학년도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여러분의 뜻 다 이룬 꿈을 전남대 산업대학원에서 이뤄 드려드리겠습니다.
주요특: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수·화, PM7-11)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을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실제,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도입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입학원서 작성	2012.11.16(금)~2012.11.23(금)09:00~18:00
입학원서 접수	2012.11.19(월)~2012.11.23(금)09:00~18:00 (마감일도착분까지유호)
합격자발표	2012.12.18(화)11:00(산업대학원홈페이지)

모집학과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
토목공학/화학공학/환경공학/농업개발학

- * 중소기업형 계약학과(20명) : 전자공학전공/컴퓨터공학전공
- * 문의: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altair.chonnam.ac.kr/~git/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남사원모집

나이가 몇 살이건, 어느 학교를 나왔건, 지난날 무슨 일을 했건, 능력이 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사람, 기회가 주어지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르는 건 배우면서 해보겠다는 사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써서 보내주시거나, 직접 방문하십시오.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5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http://www.kleader.kr

스피치 리더십 과정

제24기 수강생 모집!!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 스피치 교실

제 3기 수강생 모집

초·중·고 대학생 등을 위한 **맞춤형 스피치교육**

스피치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격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 집니다.**

교육지사·가맹점 모집 중
☎062)222-2255 /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부동산 거래,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생원동(나이트클럽) 대3238㎡, 23090㎡ 감정가 72억9천 최저가 25억9천	화정동(메식점) 대1094㎡, 214489㎡ 감정가 41억9천 최저가 17억	두암동(목욕탕) 대570㎡, 21256㎡ 감정가 12억9천 최저가 5억3천	소태동(독서실) 대561㎡, 21439㎡ 감정가 12억4천 최저가 6억9천	월출동(공정) 건1089㎡ 감정가 14억4천 최저가 10억	화순도곡(무인텔) 대1904㎡, 2628㎡ 감정가 26억2천 최저가 18억7천	월계동(근린시설) 대446㎡, 23269㎡ 감정가 6억2천 최저가 3억5천
--	---	--	--	---	--	--

유통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 금동(목욕탕) ▷대지 91평 ▷건물 303평 ▷감정가 10억 ▷매매가격 4억7천(협의후결정)	☞ 군산(바이오에너지공장) ▷대지 3025평 ▷건물597평 ▷감정가 99억4천 ▷매매가 38억 (협의후결정)	☞ 담양(금성(공정) ▷대지 1482평 ▷건물 299평 ▷감정가 7억1600만 ▷매매가격 2억(협의후결정)
☞ 용봉동(하이스포텍) ▷대지 4076평 ▷건물 12943평 ▷감정가 515억7천 ▷매매가 160억(시설비별도)	☞ 북구 대촌동(2층공장) ▷대지 1506평 ▷건물 1031평 ▷감정가 39억8천 ▷매매가 32억5천 (협의후결정)	☞ 화정동(메식점) ▷대지 330평 ▷건물 1357평 ▷감정가 41억5천 ▷매매가 20억(협의후결정)

근린시설/원룸 정현리이사 010-5879-0005 숙박시설/상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종원이사 010-8227-7759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생원동	대3238, 23090	72억 25억	3억2천	3층나이트	산동	대372, 21198	12억2천	4억3천	5층숙박	남원동	대7888, 212857	16억	4억6천	단층공장
화정동	대1094, 214489	41억9천	17억	8층메식점	산동	대227, 21004	7억5천	3억3천	5층리엔텔	광동	대6611, 212902	24억6천	17억3천	단층공장
대동	대230, 21716	7억4천	5억2천	5층근린	남원동	대446, 21448	1억9천	8천	1층일부	담양동	대1089, 212002	8억2천	5억7천	2층공장
두암동	대570, 21256	12억9천	5억2천	4층판점방	산동	대353, 21314	13억	5억8천	5층도곡	해남동	대20845, 212386	10억	1억9천	단층공장
수동	대651, 212386	13억9천	5억7천	4층상가	화순도곡	대1904, 212628	26억	18억	4층무인텔	남원동	대3958, 212053	15억	8억7천	2층공장
산원동	대4706, 211123	18억2천	12억7천	2층상가	화순도곡	대1905, 212628	26억	18억	4층무인텔	무인텔	대11028, 212988	49억	17억7천	3층공장
목포동	대1786, 21408	4억9천	2억1천	단층수원원	대동	대204, 21683	5억1천	2억1천	5층도곡	함평동	대3102, 211656	13억5천	6억4천	단층공장
보성동	대685, 21763	7억2천	1억8천	2층상가	영해동	대4539, 21704	5억5천	2억	3층도곡	남원동	대29710, 211826	17억3천	11억	3층공장
전북동	대9232, 211168	12억	4억	단층상가	대동	대440, 21218	5억	1억6천	3층상가	영광동	대85512, 214238	68억4천	22억4천	3층공장
전주동	대665, 21988	11억4천	5억8천	2층나이트	대동	대253, 21545	8억	4억4천	지하주차장	완동	대4447, 212612	10억	4억5천	단층공장

아파트/빌라 박미림팀장 010-9900-3002 주택/재개발 김수희 중개사 010-8567-4600 근린주택 손해원이사 010-9611-2817

▶ 주식회사 에셋코리아는 2006년부터 경매진행중이거나 유입한 부실자산(NPL)을 유통화회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거나 매각하고 있습니다.
▶ 병원, 공장, 메식점, 빌딩, 토지, 호텔 등 대형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시면 에셋코리아와 상의하십시오